2강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주지주의

(1교시)

◆ 행복과 뇌

※ 학습목표
환원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뇌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본다.

▲ 행복과 뇌
신생 뉴런 이론에 따르면 뇌세포는 어른이 되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생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새로이 재생된 세포는 그 자체로 자연치유력이 있다는 것이다. 신생 뉴런이 생기면 발생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기억력, 사고력, 적응력 등이 높아진다.
②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상 체험이 있으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망각시켜 버린다.
③ 외부로부터 오는 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 참고서적: 『행복한 뇌를 만드는 50가지 습관』(히사쓰네 다쓰히로/ 정광태/ 함께)

이 이론에 따르면 뇌가 쾌적한 상태에 있어야 신생 뉴런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 뉴런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뇌 생리학자는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www.artnstudy.com

(2교시)

◆ 소크라테스의 의무론적 입장

※ 학습목표
소크라테스가 취한 의무론적 입장에 비추어 행복에 대해 생각해본다.

▲ 행복한 뇌의 조건
뇌 생리학자에 따르면 뇌가 성장하고, 신생 뉴런이 만들어 지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① 적절한 자극
② 충분한 수면
③ 적절한 식사라고 한다.
또한 연애감정 혹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뇌를 활성화 시켜서 원기를 회복시켜 준다고 한다. 심지어 성 호르몬이 몸 안에 있는 자기 치유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행복한 삶의 초점
1) 이기주의: 자신에 초점을 두고 행복을 추구
2) 이타주의: 다른 사람에게 윤리적인 행동을 함으로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
3) 공리주의: 나도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
4) 원칙주의(의무론적 입장):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똑같이 윤리적 원칙에 의해 입각해서 살아야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 ex) 소크라테스

▲ 소크라테스의 의무론적 입장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탈옥할 것을 권유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해 독배를 마심으로써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다.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하고 독배를 마신 데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다.

① 우리는 남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의 탈출은 국가에 해를 끼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의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또한 법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②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태어난 이후 태어난 국가에서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 국가의 법에 복종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런데 만약 소크라테스가 떠난다고 한다면, 그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동의한 바의 것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
③ 우리의 사회와 국가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면서 스승들이기도 하다. 우리는 부모님과 스승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기소되기 전에, 아폴로 신이 명령한 것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참된 선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기소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원칙에 입각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www.artnstudy.com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태도는 서양 사상사에서 윤리적 물음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지혜가 신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무지(無知)를 아는 엄격한 철학적 반성이 중요하다고 하여, 이 격언을 자신의 철학적 활동의 출발점에 두었다.

*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소크라테스는 자기 스스로 이제 새로운 지혜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낳는 것을 도와, 그 지혜의 진위(眞僞)는 식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활동을 어머니의 직업인 산파에 비유, 산파술이라고 불렀다.

www.artnstudy.com

(3교시)

◆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주지주의

※ 학습목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가치 기준 사이의 갈등이 행복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고민해본다.

▲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주지주의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 그것으로서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잘못인지 알기만 하면,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입장에서 무엇에 대해 안다는 것과 윤리적인 행동은 일치한다.

▲윤리적 주지주의에 대한 반론
①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불행해 질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② 도덕적인 지식은 수학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점이다.
③ 순수한 도덕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란 힘들다. 즉 지성인들만이 도덕적일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본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아는 사람이 더 비도덕적인 경우도 많은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주지주의는 수학적인 공리와도 같이 절대적 기준을 전제하기 때문에, 현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안락사의 경우나,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야 할 경우, 혹은 가정에 강도가 들어와서 정당방위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입장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www.artnstudy.com